

2019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9. 6. 24. ~ 7. 14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샤스타 컬리지는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차로 10분 내로 월마트나 타겟, 원코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다. 대학의 시설은 깔끔하고 자연친화적이며 건물들은 낮고 길다.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여유로우며 자연 속 동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웹디자인 수업은 흥미있었다. 내가 배우고 싶어했던 분야라 더 재밌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 전반적인 기반이 되는 기초 실습들을 직접해보면서 직접 적용하는 게 너무 좋았다. 교수님도 매우 친절하시며 무엇이든 질문해도 같이 고민해주시고 해결해주신다. 과제는 없으며 맨 마지막에 외국인 친구와 짝을 이뤄 필드트립에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하나씩 최종적으로 만들고 발표하게 되는데 이를 만들고 나서 매우 뿌듯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오전은 컴퓨터실의 수업 오후는 항상 필드트립 일정이 있었다. 필드트립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야외활동들을 일컫는데, 매일 겹치지 않는 활동들로 재미있었다. 물론 도심지역이 아니라 주로 강이나 호수 등 자연 속에서 즐기는 활동이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와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일정 또한 있었는데 교통시간은 왕복 7~8시간이 걸렸지만 정작 자유로운 활동시간은 2~3시간 뿐이 되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한국과 달리 습하지 않은 건 진짜 좋다. 하지만 건조함 역시 지나치게 건조해서 살이 트기도 한다. 썬크림 뿐만 아니라 쉽게 건조함을 타는 친구들은 로션을 챙겨가는 걸 추천한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밤 늦게 다닐 일이 별로 없기도 한데, 특히 샤스타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서 칠흑같이 어둡다. 가로등도 많이 없어서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걸 추천한다. 또한 소매치기나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친절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 방은 생각 외로 매우 깔끔하고 아늑하다. 외국인 친구와 2인 1실로 이용하게 되며 개인마다 2층 침대를 쓰게 된다. 1층은 책상이고 2층은 침대! 하지만 사다리가 따로 있지 않고 알아서 옆에 난간을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그게 좀 처음엔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니 또 괜찮긴 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학식은 보통 대표적인 미국음식인 햄버거, 피자, 나초 등이 많이 나온다. rice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처음에는 매우 짜게 느껴져서 많이 먹지 못했는데 3주 동안 적응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긴 한다. 외부식당은 인앤아웃, 파이브가이즈, 치폴레 등등에 갔었다. 외부식당은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었다. 기타는 기숙사에서 직접 조리해 먹은 식사인데 한국에서 가져온 핫반, 김, 참치캔 또는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 등을 주방이 있는 커먼스에서 해먹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교통편은 매우 좋지 않다. 외국인 친구차를 얻어타지 않으면 우버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친구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성의금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같이 이용한 한국인 친구들끼리 그 친구의 gas비용을 지불하거나 meal를 제공하는 등 감사를 표하도록!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549,500원	-
개인 지출비용(현금)	1,000,000원	쇼핑, 외식 등
합계	2,549,5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국 음식이 3일째 이미 그리웠다..

학식이 맘에 들지 않아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자주 나갈 수 없으니 차라리 한국에서 소량의 참치캔이나 핫반, 고추장 소스들을 챙겨가는 걸 추천한다.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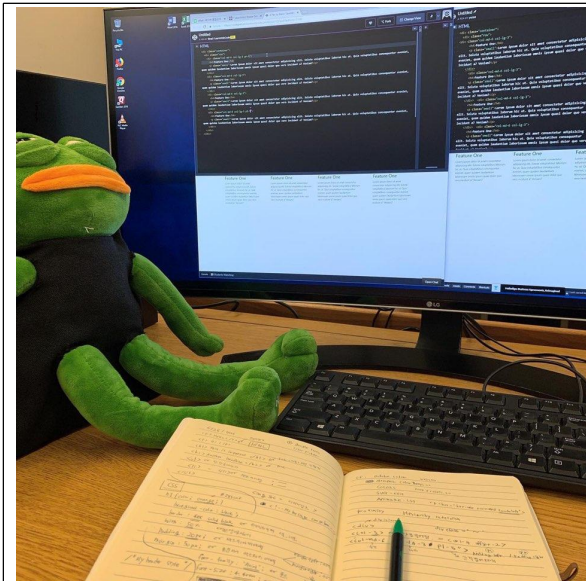
나는 한국 전통과자(?)인 쫄다기를 준비해서 같이 그릴에 구워먹었는데 다들 신기해하고 좋아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갔다 온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 미국 샹스타컬리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였는데 역시나 후회는 없었다. 물론 이번 프로그램은 밴쿠버와 달리 느낌이 매우 달랐다. 도심지역의 여행을 평소 즐기던 본인이었지만 샹스타의 기억은 다르게 특별했다. 특히 내면적인 측면! 친구들, 사람에게서 얻은 정, 그리고 친절, 그들의 건강한 마인드와 에너지가 너무 인상 깊었다. 한국이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라는 인상을 다시 느꼈으며 여기서 배운 기억들과 영감 덕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게 새겨졌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웹디자인 수업시간



학식(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치코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샤스타 댐



7/4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축제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브릿지



친구들과 주말에 간 새크라멘토 여행



기숙사 내부